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28(월) ~ 2022.4.1(금)

제공일시 2022 04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1.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첫 번째 공개초안 발표

- IFRS*는 31일 ISSB의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관련 공시에 대한 초안을 각각 발표함
- 해당 초안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권고를 기초로 하며, SASB의 산업기반 보고 요구사항도 포함하여 2가지 버전('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으로 제공됨
- 기후공시의 경우, TCFD와 유사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측정기준과 목표 등의 4가지 틀에서 공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에는 스코프 3**가 포함되어 스코프 3를 포함한 명시적 배출가스 저감 목표가 있을 때에만 공개하라고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무공시 제안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 ISSB는 120일의 협의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표준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공개함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 ** 스코프3(Scope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

(ESG TODAY, 2022.3.31)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fr-releases-first-draft-of-new-sustainability-and-climate-disclosure-standards/>

(IFRS, 2022.3.31)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3/31/ifrs-proposal-for-creating-comprehensive-basis-of-sustainability-disclosure/>

2. CA 100+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2차 평가 결과 발표

- CA 100+*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의 배출량 감축목표, 탈탄소화 전략 및 기후공개 관행 등을 점검한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평가결과를 발표함
- CA 100+는 핵심 포커스 기업의 기후 조치는 개선됐지만, 아직 의미 있는 실행에는 격차가 남아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CA 100+는 총 10가지 평가항목을 갖고 있는데, 2050 넷제로를 약속한 기업이 전체의 69%로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에 비해 42%만이 스코프3를 포함한 모든 배출물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17%만이 기업목표를 뒷받침할 강력한 탈탄소화전략을 제시하여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 700곳의 메이저 투자자들이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모인 68조 달러의 자산 보유 투자자 이니셔티브로, 가장 막강한 기후 관련 영향력을 제공하는 곳

(Climate Action, 2022.3.3)
<https://www.climateaction033.org/news/climate-action-100-net-zero-company-benchmark-shows-an-increase-in-company-net-zero-commitments-but-much-more-urgent-action-is-needed-to-align-with-a-1.5c-future>

3. 풍력·태양광, 세계 발전량 10% 선 넘었다..韓은 절반에 그쳐

- 재생에너지의 대표 격인 풍력·태양광이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풍력·태양광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 3월 30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깨끗한 전력원'으로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10.3%가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됨
- 풍력·태양광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국가는 50개국에 달했고,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선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이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 10%를 처음 넘어섰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느린 편으로, 지난해 풍력(0.55%)과 태양광(4.12%)을 합친 비중은 4.7%를 기록함.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페루, 태국, 도미니카 등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

(중앙일보, 2022.3.30) 정종훈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2895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3.28(월) ~ 2022.4.1(금)

제공일시 2022 04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경영 도입하는데 이사회 감독 역할 부족해

- 글로벌 컨설팅 및 자문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기업 이사회에서 ESG 의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담은 ‘이사회 ESG 맥박체크(The BCG-INSEAD Board ESG Pulse Check)’ 보고서를 30일(현지시간) 공개
- BCG는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과 함께, 평균 이사 경력이 7년 이상인 122명의 이사를 심층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음. 설문에 참여한 이사들은 평균 2개 기업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80%는 비상임이사이고 33%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BCG는 밝힘
- BCG 조사에 따르면, **ESG 리스크 관리가 기업 성과와 가치 창출 측면에서 보다 중요해지고, ESG 생태계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ESG 의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내외부 압박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이사회에서 ESG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및 감독 차원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에 참여한 이사 71%는 이사회가 ESG를 기업 전략 및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 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이사회가 ESG를 효과적으로 통합 및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44%가 이사진들의 ESG 관련 ‘지식 및 역량 부족과 데이터 접근 제약’을 꼽음.** 그 다음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ESG 관리체계(43%), 이사회 ESG 개입/전념 부족(30%), ESG 아이디어 추진력 부족(26%) 등이 차례로 꼽힘
- BCG는 기업 이사회가 어떠한 구조 아래서 ESG를 관리, 감독하는지도 조사. 가장 흔한 체계는 이사회 전체가 ESG 책임을 가지고 의제를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었으며(31%), 그 다음으로 높은 방식은 전담 ESG 위원회 조직(20%), 별도의 위원회 조직없이 전담 이사가 관리(15%) 순이었음. 한편, 응답자의 12%는 이사회에서 ESG를 관리감독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이사회가 ESG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기업이 ESG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43%가 조직의 실행 능력 부족을 꼽음. 또, 비용 증가 우려(35%), 조직문화 충돌(32%), 경영진 개입/전념(30%) 부족 등으로 ESG 의제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봄
- 한편, **ESG 의제 중 탄소배출이 이사회 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남.** BCG는 소비자, 에너지, 금융, 원자재, 보건의료 등 8개 산업군의 이사회 ESG 상위 의제를 조사한 결과, 금융과 보건의료 섹터를 제외한 6개 산업군의 이사회에서 ‘탄소배출’이 중요 의제로 꼽힘. 금융섹터의 대다수 이사회에서는 ‘탄소배출’이 주요 의제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금융 거래에서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위 의제에 포함
- 특히,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넷제로(탄소중립) 선언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BCG는 밝힘. 설문에 참여한 43%는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이 넷제로 서약을 했다고 응답. 하지만 서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넷제로 선언을 밝힌 응답자의 55%만이 이사회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3%만이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밝힘

(ESG Today, 2022.4.1) Mark Segal
<http://www.esgtoday.com/bcg-insead-board-esg-pulse-check/>

(BCG, 2022.3.30)
<https://www.bcg.com/resources/insights/bcg-insead-esg-board-survey-series>